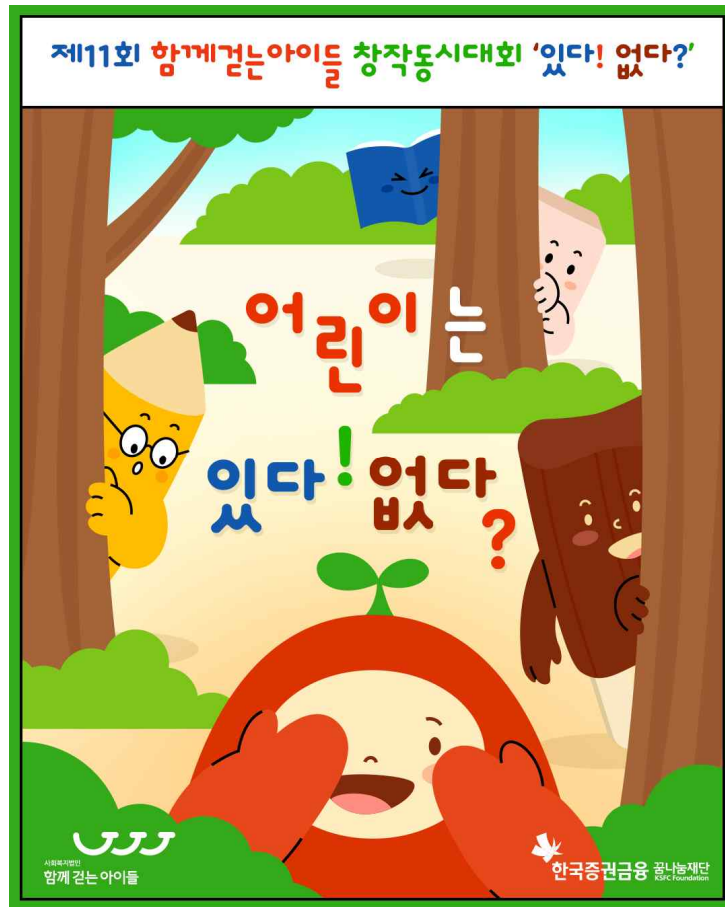


제11회 함께걷는아이들 창작동시대회 ‘있다! 없다?’ 수상작 안내



■ 심사개요

- 심사대상 : 제11회 함께걷는아이들 창작동시대회 공모작품 2,751편 중 심사대상 2,728편
 - 심사기간 : 2025년 6월 10일 ~ 7월 3일
 - 심사자 : 박경장 문학평론가, 장세정 동시작가, 김유진 아동문학평론가
 - 심사기준 :
 - 진실성 (남의 생각과 언어를 훔쳐 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정직하게 담아내고 있는가)
 - 창의성 (사물과 대상에 대한 관찰력과 상상력이 독창적이고 풍부한가)
 - 예술성 (글의 짜임새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 주제적합성 (동시대회의 주제 '어린이'에 대한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공모주제 : '어린이'는 _____(이/가) 있다! 없다?
- *어린이를 떠올리며, 빈칸에 들어갈 소재를 생각해보고 나의 생각과 느낌을 동시에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

※ 수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나다순)

■ 대상 (1명)

아동명	소속	학년	작품명
임보영	상상나루래키움센터	6	나의 꿈

■ 최우수상 (3명)

아동명	소속	학년	작품명
김지아	솔밭초등학교	5	나만 맨날 입이 없어.
이유준	서울대도초등학교	3	좀
정혜윤	춘천부안초등학교	1	학교 안 가는 날

■ 우수상 (30명)

아동명	소속	학년	작품명
강시온	우리동네키움센터 광진구7호점	1	똥 못 싸는 곳
고보미	부산성북초등학교	4	짐 없는 집
김가빈	구리토평초등학교	2	'처음'으로 가득한 아이
김도현	책통클럽보배국어논술학원	4	아이들의 어른들의 CCTV
김민서	한빛교실지역아동센터	6	자신감
김소율	익산가온초등학교	2	약한 마음
김유이	미산초등학교	1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김유정	금교초등학교	5	겉은 같고 속은 다르다
김지원	어깨동무지역아동센터	1	어린이는 욕심이 있다
박예린	용인대청초등학교	6	핑계 아님 주의
박재현	충암초등학교	5	장난꾸러기의 변명
백서윤	아란지역아동센터	4	어린이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다
신서윤	덕은한강초등학교	3	10살 사춘기
신승윤	순천왕운초등학교	5	아이의 장난
신정윤	서울서정초등학교	5	아이들은 말대꾸가 없다
안리호	나래초등학교	6	어린이는 꿈이 있다
왕동연	춘천부안초등학교	1	용돈
유시안	생각나래 논술 대전 도룡	2	어린이는 할 말이 있어요
윤지영	봄이야기	5	어린이도 역사의식이 있다

이유빈	배정순독서논술학원	6	1분 양심
이준민	성공회푸른나래지역아동센터	5	사랑
이채호	글봄독서논술학원	5	쉽표
이현아	사동지역아동센터	4	어린이는 있다!
임주이	서울가재울초등학교	4	(우리반) 어린이는 핸드폰이 있다! 나만 빼고.
정주원	금락지역아동센터	4	비 오는 날
정혜인	춘천부안초등학교	4	눈치
조예주	선행초등학교	4	상상 세상
천승우	일광초등학교	5	산타가 있었다.
한다엘	갈매초등학교	3	어른과 아이들은 거짓말이 있다.
한지안	서울잠실초등학교	4	느긋함

■ 장려상 (40명)

아동명	소속	학년	작품명
권도연	잼나는 독서논술학원	5	어린이도 사생활이 있다
권리온	성심원	3	어린이는 동물의 마음이 있다
김나윤	대구대실초등학교	4	특별렌즈
김리환	사평지역아동센터	1	내 마음
김민지	리딩오션동호센터	6	'사춘기'가 있다
김서울	배정순독서논술학원	4	필통 엄마
김서진	다음지역아동센터	3	할아버지가 있다.
김수호	성모지역아동센터	6	나는 허락이 없다.
김승환	매산초등학교	2	난 지금 있다
김이수아	대전내동초등학교	5	어린이는 왕관을 벗어야 할 때가 있다!
김지유	미산초등학교	4	감정을 느끼는 아이들
김채아	한벌초등학교	5	어린이는 눈치가 있다
박주하	화성시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꿈담은 교실	3	어린이의 나비
서지울	동대문7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6	어린이는 사랑이 있다.
서채영	미래를 읽는 부모 학원	6	어린이에게는 거짓된 얼굴이 있습니다.
석지안	대구삼익지역아동센터	1	스케치북
손윤호	청천초등학교	1	생각주머니
송하름	봄이야기	6	낮가림
신가윤	고촌초등학교	3	어린이는 잘 하는 것이 있다

신하준	대청초등학교	3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오현진	과천갈현초등학교	5	어린이도 생각이 있다
유건	잠실초등학교	6	어린이의 꿈
유재민	창신초등학교	6	어린이는 있다
이나윤	용인신봉초등학교	3	아름다운 아이들
이도훈	생각나래 논술 대전 도룡	1	어린이에게는 행복이 있다
이시아	글이예술	3	배고픈 어린이
이아림	신우초등학교	5	어린이들의 세상이란
이우승	글봄독서논술학원	4	월요일
이은호	부천중앙초등학교	5	월요일
이정윤	용인한얼초등학교	4	어린이에게는 모험인 걸.
이정진	새숲지역아동센터	6	지우개
장채아	사랑의지역아동센터	2	자라나는 용기!!!
전다희	상현초등학교	5	거짓말을 하면
정혜윤	서울은명초등학교	4	웃음꽃의 비밀
조이한	생각나래 논술 대전 도룡	5	어린이의 비밀 일기
주영재	창신초등학교	6	나에게는 용기가 있다.
천세은	잼나는 독서논술학원	6	어린이는 풍선이 있다
최도영	사동지역아동센터	2	어린이는 학원에 있다
함가을	대구삼육초등학교	2	가짜 웃음
황서윤	금락지역아동센터	3	곰인형이 있다

▣ 특별상 (20명)

아동명	소속	학년	작품명
강만득	참다운하늘꿈터지역아동센터	3	마음 술래잡기
김기범	달팽이지역아동센터	6	상상
김민주	서현초등학교	1	가방 속 준비물
김예은	봉계지역아동센터	3	얼굴
김예준	서울불광초등학교	5	어린이는 투표권이 없다
류주원	삼성지역아동센터	4	도망간 집중력
박준상	꿈이있는지역아동센터	5	어린이는 신호등 같은 마음이 있다.
서유림	부성초등학교	6	학교와 회사
오정현	기안초등학교	5	문제아
유찬민	서울잠현초등학교	6	잠을 잃은 아이들

윤상원	리딩오션동호센터	4	도서 대출증만 있으면
이고은	대구대실초등학교	4	미운 시간
이민하	경주초등학교	3	나에게 있는 것
이상은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5	있어도 놀리면 안 돼!
이은성	용인한얼초등학교	4	시간과자
이준희	상탄초등학교	4	어린이에게는 시간이 있다
이지우	꿈마을지역아동센터	3	그림자가 있다.
장용범	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	4	내 마음 인사이드 아웃
최수한	새나라지역아동센터	5	내 안에 의견금고
최재영	부흥초등학교	6	어린이는 마음의 숲이 있다

■ 심사총평

심사평

박경장 심사위원

어린이에게는 ()이 ‘있고’ ‘없을까?’ 제11회 함께걷는아이들 창작동시대회 글제입니다. 심사자로서 뿐만 아니라 어른으로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20, 30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심한 소통의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대 간 갈등을 풀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겁니다.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세대를 이끌고 갈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시 심사를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은 보다 근본적일지도 모른다, 더욱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있고’ ‘없고’ 문제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대부분은 상대적 비교에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20, 30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상대적 결핍은 기성사회가 만들어 놓은 약육강식의 무한경쟁체제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10, 20년 후에 그런 경쟁체제에 들어갈 우리 어린이들 마음속(동심)엔 무엇이 있고 없는지, 그 잠재적 갈등 또는 화해의 씨앗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읽은 900여 편의 동심에 가장 많이 깃들여 있는 것이 ‘꿈’과 ‘희망’인 것을 보고 얼마나 안도하고 기뻐는지 모릅니다. 그 꿈과 희망 곁에 늘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고 ‘친구’인 것을 보고는 ‘우리는 공동체를 중시하는 나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꿈과 희망에 그늘이 드리울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해야 할 숙제가 너무 많고, 가야 할 학원이 줄줄이, ‘공부해야지’ 매일 들려오는 엄마의 잔소리. 그러하니 마음껏 친구들과 뛰어놀 ‘시간’과 ‘자유’가 없는 게 제일 불만입니다. 물론 우리 어린이들이 무엇보다 공부 열심히 해 많이 배워야 한다는 걸 모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철이 없다’고 느끼는 동심들도 꽤 있었지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낸답니다. 우리나라는 땅은 좁은데 상대적으로 인구는 많고, 천연자원은 빈약해 오직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세계를 상대로 경쟁을 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모든 분야에 걸쳐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까지 경쟁이 일상화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맑고 푸른 동심에 언 듯 언 듯 먹구름이 겹쳐지는 환영이 보여 조금 슬펐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인내와 슬기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룬 우리 선조의 DNA가 우리 동심에도 고스라이 전해지고 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니, 어린이 여러분, “너희는 꿈이 무엇이니?” 선생님의 물음에 나만 답을 못했다고 속상해하거나 걱정하지 마요. 발효되며 깊은 맛을 내는 우리네 장맛처럼 꿈도 곰삭아야 모든 음식에 배어 제 맛이 우러나는 법이니까요. ‘뭐... 언젠간 생기겠지~!’ 가벼운 마음과 발걸음으로 친구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요.

심사평 <어린이라는 시>

장세정 심사위원

올해도 함께걷는아이들 창작동시대회에 많은 작품이 접수되어 동시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게 하는 주제이니만큼, 어린이만이 말할 수 있는 진실하고 간절한 있음과 없음의 목소리를 기대하며 읽었습니다.

저는 909편의 작품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시가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있음’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가족과 친구들, 반려동물들에 대한 있음, 그리고 인간으로서 갖는 다양한 감정에 대한 표현 의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라는 특수성이 갖는 ‘있음’에 대한 목소리도 두드러졌는데, 어린이날, 미래에 대한 꿈과 재능, 무한한 상상력 등을 주로 들어 썼습니다. 나아가 어린이이기에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한 자기 선언도 넘쳐났습니다. 학교와 학원, 숙제로 움츠린 현실에 대해 어린이 스스로가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힘주어 말하는 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다채로운 목소리는 어린이가 보편적 인간이면서 동시에 특수성을 지닌 생동하는 존재임을 증거하는 듯 보여 읽는 내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시를 써야 할까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절실한 것을 쓰되, 마치 그 자리에서 지금 말하고 듣고 지켜보고 행동하는 것처럼 쓰면 좋습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과 어떤 작용을 했는지, 그때 내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쉽고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쓴다면 읽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일기가 아니라 시니까 꼭 필요한 말로 쓰면 더 좋겠지요.

그런 시들이 있어 참 반가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입이 없는데 자신만 입이 없다고 말하는 시, 학교에선 도무지 똥을 쌀 수 없다는 시, 상상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직접 보여주는 시, 어린이도 역사 인식이 확고하다고 자부하는 시, 어린이의 눈은 어른을 바라보는 CCTV라며 어른에게 일침을 날리는 시. 이런 시들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읽는 사람도 공감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린이가 어린이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가능성과 능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놀라운 존재인 것과 닮았습니다.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은 이미 한 편의 시입니다. 글로 쓰는 시도 멋지지만 앞으로 살아냄으로 써가는 멋진 시를 자기답게 천천히 완성해 나가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시를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평

김유진 심사위원

올해 대회 주제인 ‘어린이는 있다/없다’는 어린이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던 기회였습니다. 많은 어린이가 솔직하게 시를 써 주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읽은 시에서 어린이들은 꿈, 자유, 미래, 가족, 선생님, 권리 등이 어린이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마음껏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 더 밝고 활기찬 사회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족과 선생님을 사랑하는 어린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많은 어린이가 어린이의 권리를 떠올린 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점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던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어린이들은 안전할 권리, 교육 받을 권리 등을 알고 있는 걸 보니 무척 반갑고 든든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전시켰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마음껏 쉬고 놀 시간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많은 어린이가 그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걸 읽으며 마음이 무거웠고 미안했습니다. 어린이가 없다고 말하는 것 중 과연 무엇이든 줄 수 있고, 무엇이든 줄 수 없을지 새삼 고민해 보았습니다. 운전면허는 허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투표권은 어떨까요? 어린이에게 있는 것들의 목록과 달리 어린이에게 없는 것들의 목록은 어른이 주지 않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에게 없는 것들의 목록을 돌아보며 어른들이 어린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더 곰곰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의 시를 읽으며 어린이의 마음과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며 어린이에게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어린이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말입니다. 그럴 때 좋은 어른이 많아지고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 대상후보작 최종심사 총평

대상 심사평

제11회 함께걷는아이들 창작동시대회 ‘어린이는 (이/가) 있다! 없다?’에 출품된 2,751편 중 〈학교 안 가는 날〉 정혜윤(1학년), 〈나만 맨날 입이 없어〉 김지아(5학년), 〈나의 꿈〉 임보영(6학년)이 대상 최종심사 후보에 올랐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작품입니다.

학교 안 가는 날

정혜윤(1학년)

학교 안 가는 날
엄마가 안 깨워도 눈이 떠져요.
학교 안 가는 날 일어나는 게 쉬워요

엄마는 쿨쿨 자고
아빠는 코골며 자고
언니는 다람쥐처럼 자요

혼자 심심해서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깨우고 혼자 놀아요
어린이는 쉬는 날 잠이 없어요.

아직은 공부로 숙제로 학원으로 몸이 시달리지 않은 일학년이어서 일까요. 학교 안가는 날 절로 눈이 떠진다는 발상(發想)에서, 식구들은 아직 자고 있어 깨울까 고민하다 혼자 논다는 시상(詩想)전개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린이는 쉬는 날 잠이 없어요’로 갈무리되는 구조가 탄탄한 시입니다. 글쓰기가 일학년이라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나만 맨날 입이 없어.

김지아(5학년)

이 세계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 입이 있다.
어린이인 나도,

근데,

“나 지금 말고 있다가 씻으면 안돼?”
“응, 안돼. 지금 씻어!”

나만 맨날 입이 없어.
다른 사람은 다 입이 있는데!

시라는 글 갈래의 특징은 무엇보다 짧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시의 생명은 확장과 응축으로 충만된 긴장감, 그것에서 발산하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일상의 경험에서 순간 ‘나만 맨날 입이 없다’는 발견 혹은 깨달음과, ‘입’으로 응축된 이미지가 환기하는 ‘자유, 외침, 저항’ 등의 비유적 확장으로 발산되는 에너지가 돋보이는 시입니다.

나의 꿈

임보영(6학년)

어느 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꿈이 무엇이니?’

‘저는 사자처럼 용감한 경찰이요!’
‘저는 무엇이든 치료하는 의사요!’
‘저, 저는 아직 꿈이 없어요.’

친구들이 날 신기하게 쳐다본다.
송곳으로 나의 마음속을 찌르는 것 같다.
얼굴은 붉어지고,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른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나의 꿈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
나의 머릿속은 새하얀 백지 같다.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
‘뭐... 언젠간 생기겠지~!’
그리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집으로 간다.

‘시는 진실로 쓰는 것’이라는 어느 노시인의 말을 떠올리게 하는 시입니다. 이번 시제 ‘어린이는 (이/가) 있다! 없다?’에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미래의 꿈’이었지요. 하지만 이 시의 저자는 아직 꿈이 없음을, 꿈같은 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 친구들 앞에서 자기만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창피함. 집으로 오는 길에 다시 생각해도 여전한 막막함. 하지만 ‘뭐. . .언젠간 생기겠지~!’로 어린이답게 털어내는 가벼움이 참으로 예뻐했습니다. 오히려 이 시인의 꿈이 무엇이 될지 더욱 궁금하고 기대하게 하는 시였습니다.

대상 최종후보에 오른 세 편의 시는 저마다의 특징과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세 분은 그중 여운이 가장 오래 남는 시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나의 꿈〉 임보영 시인님, 제11회 함께걷는아이들 창작동시대회 대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인님의 미래 꿈이 정말 궁금합니다.

심사위원 박경장, 장세정, 김유진 (정리: 박경장)